<h1>나 혼자만 레벨업-43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f5e92502a92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43화</p>  
<p>27에서 39까지, 자그마치 12레벨이나 올라갔다.</p>  
<p>1레벨로 첫 인던에 들어가서 17레벨로 나왔을 때 이후, 이렇게 레벨이 폭등한 건 처음이었다.</p>  
<p>그때는 레벨이라도 낮았지.</p>  
<p>지금은 그것도 아니다.</p>  
<p>그만큼 많은 던전을 빠르게 돌았단 소리였다.</p>  
<p>'유진호와 같이 레이드를 시작한 지 나흘째, 4일 만에 벌써 아홉 개의 던전을 돌았으니...'</p>  
<p>그것도 C급 던전 아홉 개다.</p>  
<p>개인이 클리어할 수 있는 규모의 던전으로는 가장 높은 난이도를 가진 C급 던전을 말이다.</p>  
<p>정말 미칠 듯한 스피드였다.</p>  
<p>C급 던전이 필요했던 다른 헌터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 없었다.</p>  
<p>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유진호가 점점 빨라지는 공략 속도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.</p>  
<p>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던전 공략은 수월해지니까.</p>  
<p>아홉 개의 던전에 12레벨 상승.</p>  
<p>던전 하나를 돌 때마다 1레벨 이상이 오른 셈이다.</p>  
<p>남은 레이드는 10번.</p>  
<p>처음 유진호와 약속했던 19번의 레이드를 모두 채우고 나면 45레벨은 거뜬히 넘길 것으로 보였다.</p>  
<p>20레벨 중반일 때 B급 헌터를 이겼다.</p>  
<p>지금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됐을지 가늠하기도 힘들었다.</p>  
<p>'가슴이 뛴다.'</p>  
<p>진우는 심장 부근에 손을 가져다 댔다.</p>  
<p>심장이 거칠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.</p>  
<p>쿵쾅쿵쾅.</p>  
<p>나날이 강해진다는 것은 실로 즐거운 느낌이었다.</p>  
<p>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다.</p>  
<p>게이트에 들어가는 게, 던전을 공략하는 게 이리도 즐겁다니.</p>  
<p>'내가 강해지는 걸 순간순간 확인할 수 있으니까.'</p>  
<p>레벨이 올라갈 때마다.</p>  
<p>능력치가 변할 때마다.</p>  
<p>마수들을 사냥하며 달라진 자신을 바로 체감할 수 있었다.</p>  
<p>'사냥이라...'</p>  
<p>이제야 진짜 헌터가 된 느낌이었다.</p>  
<p>사냥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았다.</p>  
<p>사냥꾼에게 사냥하는 순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다음 사냥터를 물색하는 것이라고 했던가.</p>  
<p>다음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다.</p>  
<p>'...악마성 던전.'</p>  
<p>21레벨이었을 때였나?</p>  
<p>처음 악마성에 발을 디뎠을 때보다 20레벨 가까이 성장했다.</p>  
<p>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,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.</p>  
<p>하지만 아직도 그때 만났던 문지기 개 켈베로스를 떠올리면 선뜻 발을 들이기가 조심스러웠다.</p>  
<p>'성문을 열었는데 감당할 수 없는 녀석들이 무더기로 튀어나온다면...'</p>  
<p>소름이 끼쳤다.</p>  
<p>은신 스킬로 도망쳐 나올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겠으나 그렇게 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었다.</p>  
<p>10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게 헌터였다.</p>  
<p>그러니 확신이 필요했다.</p>  
<p>켈베로스 같은 녀석들이 떼거리로 덤벼 와도 상대할 수 있다는 확신이.</p>  
<p>'켈베로스의 이름은 붉은색이었지.'</p>  
<p>몬스터의 난이도는 이름 색깔로 나뉜다.</p>  
<p>아직 악마성에서 말고는 붉은색 이름을 가진 몬스터를 본 적이 없었다.</p>  
<p>랜덤 박스에서 떨어진 열쇠로 인던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하위 몬스터들이 나왔다.</p>  
<p>오늘 들렀던 미래 백화점 인던도 그랬고.</p>  
<p>그런데 왜일까?</p>  
<p>'뭐지?'</p>  
<p>악마성 외의 장소에서 붉은색 몬스터를 본 적 없다고 생각했을 때 왠지 석연찮은 기분이 들었다.</p>  
<p>꼭 뭔가를 잊은 것 같은 느낌.</p>  
<p>'악마성 말고도 붉은색 몬스터와 마주친 적이 있던가?'</p>  
<p>그럴 리가.</p>  
<p>21렙일 때 켈베로스와 싸우고도 죽을 뻔했는데 그전에 붉은색 몬스터와 마주쳤다면 당연히 죽기 직전까지 갔어야...</p>  
<p>"아!"</p>  
<p>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.</p>  
<p>그래, 있었다.</p>  
<p>붉은 이름의 몬스터와 마주쳐서 죽기 직전까지 갔던 순간이.</p>  
<p>'페널티 퀘스트!'</p>  
<p>그때 사막에서 본 지네들이 붉은색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.</p>  
<p>[독이빨 거대 모레지네]</p>  
<p>시간이 좀 흘렀고 의도치 않게 만나게 된 놈들이라 머릿속에서 몬스터라는 인식이 희미해져 있었다.</p>  
<p>그래서 쉽게 기억이 안 났다.</p>  
<p>'그 지네들을 쉽게 잡을 수 있다면!'</p>  
<p>악마성 공략도 자신할 수 있게 된다.</p>  
<p>지네가 한 마리가 아니었으니 다수를 상대해도 괜찮을지까지 알 수 있을 터였다.</p>  
<p>문제는 어떻게 다시 그곳으로 가느냐 하는 건데...</p>  
<p>'역시 일일 퀘를 빼먹는 수밖에 없나?'</p>  
<p>어차피 페널티 퀘스트를 하건, 일일 퀘스트를 하건 보상으로 받는 능력치 포인트는 같았다.</p>  
<p>손해 볼 건 없다는 소리.</p>  
<p>'내일은 페널티 존으로 이동해 보자.'</p>  
<p>페널티 퀘스트를 받기 위해 일부러 일일 퀘스트를 빼먹다니.</p>  
<p>처음 지네들에게서 죽다 살아 나왔을 때를 떠올리면 웃긴 일이었다.</p>  
<p>"놈들은 경험치나 아이템 같은 거 안 주려나?"</p>  
<p>절로 미소가 지어졌다.</p>  
<p>그때.</p>  
<p>진우의 기감에 복도 끝에 위치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치는 한 사람의 기척이 걸려들었다.</p>  
<p>여성의 가벼운 발소리.</p>  
<p>낯설지 않다.</p>  
<p>'진아네.'</p>  
<p>지금은 밤 11시.</p>  
<p>동생이 올 시간이었다.</p>  
<p>진우는 동생이 열쇠를 찾아 주머니를 뒤적이기 전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.</p>  
<p>덜컹.</p>  
<p>"올~"</p>  
<p>진아가 장난스럽게 감탄했다.</p>  
<p>처음엔 갑자기 열리던 문 앞에서 깜짝깜짝 놀라던 녀석이 이젠 놀라지도 않는다.</p>  
<p>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더니.</p>  
<p>"잘 다녀왔습니다."</p>  
<p>"오냐."</p>  
<p>진아는 반갑게 인사하고는 자기 방으로 총총 걸어 들어갔다.</p>  
<p>그렇게 문을 잠그고 돌아서려는데.</p>  
<p>"오빠."</p>  
<p>진아가 방문을 빼꼼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.</p>  
<p>"혹시 이번 주에 시간 나는 날 있어?"</p>  
<p>"시간은 왜?"</p>  
<p>"쌤이 학부모 상담해야 한다고 해서. 안 되면 어쩔 수 없구."</p>  
<p>담임의 특명이라도 있었는지 진아의 얼굴이 초조해 보였다.</p>  
<p>'학부모 상담이라...'</p>  
<p>진아가 고3이다 보니 학교도 바쁜 모양이었다.</p>  
<p>시간 없다고 핑계라도 대고 싶었는데, 아쉽게도 스케줄이 비는 날이 있었다.</p>  
<p>'하여튼 유진호, 도움이 안 돼요.'</p>  
<p>진우가 고민 끝에 대답했다.</p>  
<p>"목요일."</p>  
<p>"정말? 오빠 고마워!"</p>  
<p>진아의 표정이 환하게 바뀌었다.</p>  
<p>금방이라도 달려와 안겨들 것 같은 분위기라 진우는 눈치 빠르게 훠이훠이 손을 내저었다.</p>  
<p>"칫."</p>  
<p>진아는 눈을 흘기니 방문을 닫고 들어갔다.</p>  
<p>곧 진우의 입에서 한숨이 흘러나왔다.</p>  
<p>"후-"</p>  
<p>쉴 새 없는 레이드에, 패널티 존도 들러야 하고, 모래는 학부모 상담까지.</p>  
<p>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았다.</p>  
<p>8. 전직 퀘스트</p>  
<p>진우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.</p>  
<p>오늘은 일정이 꽉 차있었다.</p>  
<p>유진호가 게이트를 네 개나 예약해 놨다고 했다.</p>  
<p>하루 쉰다고 내일 몫까지 해치울 모양이었다.</p>  
<p>'하긴, 요즘 클리어 속도를 생각하면...'</p>  
<p>하루에 던전 네다섯 개도 거뜬했다.</p>  
<p>단지 가까운 곳에 그만큼 C급 게이트가 한꺼번에 생기는 경우가 드물 뿐이지.</p>  
<p>그러니 오늘은 운이 좋은 편이었다.</p>  
<p>가벼운 발걸음으로 아파트 동 입구에 도착했다.</p>  
<p>그런데 항상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유진호의 봉고가 보이지 않았다.</p>  
<p>거기다 수상한 기척까지 느껴졌다.</p>  
<p>"쯧."</p>  
<p>어제 일이 없었다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어림도 없었다.</p>  
<p>'분명히 경고했는데...'</p>  
<p>진우는 곧바로 모퉁이를 돌아 숨어 있던 양복 차림의 남자를 발견했다.</p>  
<p>시계를 보고 있던 남자는 아직 진우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.</p>  
<p>진우가 코앞에서 남자를 불렀다.</p>  
<p>"저기요."</p>  
<p>남자는 펄쩍 뛰어올랐다.</p>  
<p>"서, 성진우 헌터님!"</p>  
<p>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이었다.</p>  
<p>'뭐, 그러라고 일부러 기척을 죽이고 움직였던 거지만.'</p>  
<p>진우는 속으로 끌끌 혀를 찼다.</p>  
<p>"백호 길드에서 오셨죠?"</p>  
<p>"네? 아, 네. 백호 길드 제2관리과 현기철이라고 합니다."</p>  
<p>어제 안상민 과장인가 하는 사람이 부하 직원을 하나 데리고 있다더니 이 남자인 듯했다.</p>  
<p>"반갑습니다, 헌터님."</p>  
<p>현기철이 눈치를 보며 손을 내밀었다.</p>  
<p>악수라도 해 달라는 것 같은데, 진우는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.</p>  
<p>말없이 쳐다보고 있으려니 현기철이 얼굴을 붉히며 손을 뺐다.</p>  
<p>"당분간 길드에 들어갈 생각은 없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?"</p>  
<p>현기철은 급하게 손을 내저었다.</p>  
<p>"아, 그러려고 온 게 아닙니다."</p>  
<p>그러면서 텀블러를 들고 있던 다른 손을 내뻗었다.</p>  
<p>"이게 뭡니까?"</p>  
<p>진우는 반투명 텀블러 안에 든 알록달록한 액체를 보며 물었다.</p>  
<p>현기철이 가슴을 펴고 말했다.</p>  
<p>"야채 주습니다. 제가 직접 갈아 만든 거니 품질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!"</p>  
<p>"..."</p>  
<p>계속 내밀고 있는 현기철의 손.</p>  
<p>진우는 하는 수 없이 텀블러를 받아 들고서 재차 물었다.</p>  
<p>"그러니까, 지금 이걸 주려고 새벽부터 절 기다리셨다고요?"</p>  
<p>"예, 헌터님도 건강관리 하셔야죠!"</p>  
<p>왜 내 건강을 백호 길드에서 신경 써 주냐는 의문도 잠시.</p>  
<p>현기철은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해맑게 웃으며 멀어졌다.</p>  
<p>"다음에 또 뵙겠습니다, 헌터님!"</p>  
<p>손을 흔드는 현기철에게 진우도 텀블러를 흔들어 보였다.</p>  
<p>"...재밌는 사람이네."</p>  
<p>현기철이 사라지고 나서 진우는 물끄러미 텀블러를 쳐다보았다.</p>  
<p>고객들에게 야쿠르트를 나눠주며 호감을 샀다는 보험왕 이야기는 들어봤지만, 야채를 손수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 오는 사원은 아마 저 인간이 최초일 거다.</p>  
<p>'아무튼 받은 건데 버릴 수는 없고.'</p>  
<p>그럴 일도 없지만, 만에 하나 독을 탔다고 해도 해독 버프가 있으니 문제 될 것은 없었다.</p>  
<p>그러니 일단 맛이나 볼까?</p>  
<p>쭉.</p>  
<p>텀블러에 꽂힌 빨대로 주스를 맛보던 진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.</p>  
<p>'맛있네?'</p>  
<p>그때 귀에 익은 목소리가 뒤쪽에서 들려왔다.</p>  
<p>"형님!"</p>  
<p>돌아보니 유진호가 다가오고 있었다.</p>  
<p>언제나처럼 밝은 얼굴의 유진호는 현기철이 사라진 방향을 턱짓으로 가리켰다.</p>  
<p>"형님, 방금 누굽니까? 아까부터 서 있던데."</p>  
<p>진우의 대답은 간단했다.</p>  
<p>"보험 파는 사람."</p>  
<p>"아하."</p>  
<p>긍정파답게 유진호는 쉽게 받아들였다.</p>  
<p>진우는 주위를 둘러보다 물었다.</p>  
<p>"너 차는?"</p>  
<p>현기철이 여기 서 있는 걸 봤다는 말은 유진호 본인도 한참 전에 도착해 있었다는 뜻인데, 이상하게도 유진호의 애마인 봉고가 보이지 않았다.</p>  
<p>"저쪽에 세워 놓고 왔습니다, 형님."</p>  
<p>"웬일로?"</p>  
<p>"최근에 요 근처에서 묻지마 살인사건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? 제가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다들 좀 수상하게 여기더라고요."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끄덕거렸다.</p>  
<p>요즘 뉴스에서 종종 언급되고 있는 사건이었다.</p>  
<p>피해자는 주로 젊은 여성.</p>  
<p>이번 달에만 벌써 두 건이라고 하던가.</p>  
<p>그런 상황에서 못 보던 검은색 봉고가 아파트 입구를 떡 하니 막고 서 있었으니.</p>  
<p>주민들이 걱정할 만하긴 했다.</p>  
<p>쿠루룩, 쿠루루루룩.</p>  
<p>마침 야채 주스가 바닥을 드러냈다.</p>  
<p>진우는 텅 빈 텀블러를 흔들어 보다가 차를 세워 놨다는 쪽으로 향했다.</p>  
<p>"가자."</p>  
<p>"예. 형님!"</p>  
<p>\*\*\*</p>  
<p>이번 던전에선 리자드맨이 나왔다.</p>  
<p>리자드맨은 말 그대로 도마뱀 인간이다.</p>  
<p>두 다리로 걸어 다니고, 무기도 들고, 가끔 마법을 쓰기도 한다.</p>  
<p>마법을 쓰는 리자드맨 주술사들은 숫자가 적다.</p>  
<p>그러나 그만큼 까다로운 적이었다.</p>  
<p>리자드맨 주술사의 손끝에서 두 개의 화염구가 생겨났다.</p>  
<p>'마법?'</p>  
<p>진우가 접근하려 하자 주술사의 양 옆을 지키는 리자드맨 두 마리가 즉시 창을 세웠다.</p>  
<p>파충류다운 순발력이었다.</p>  
<p>진우는 뒤로 점프해 아슬아슬하게 창끝을 피했다.</p>  
<p>아마 불덩어리들이 연타로 날아왔다.</p>  
<p>슈우욱-</p>  
<p>슈욱-</p>  
<p>"형님, 조심하세요!"</p>  
<p>먼발치에서 보고 있던 유진호가 목에 핏대를 세웠다.</p>  
<p>콰광!</p>  
<p>폭음이 터지며 좁은 동굴 안이 흔들렸다.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